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영갑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kimygarp@naver.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Public Administration) (국가) 미국		
기간	2015. 12. 28 - 2016. 12. 21		[귀국일: 2016년12월22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6 년 12 월 일

신청인 : 김영갑 (인)

귀 국 보 고 서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학위과정

2015 GMP 김영갑

작성일: 2016년 12월 22일

◇ 미국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결심

2014년 11월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이후, 미국에서의 1년간 공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동안 배워온 영어를 활용해서 미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싶었다. 2년차 미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통해 생활영어도 좀 더 익히고, 그 동안 업무에만 몰두하면서 지내온 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우선, GMP의 1+1과정은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이 이왕이면 학위과정을 하고 싶겠지만, 현재 영어실력이 미국의 대학원에서 수업을 제대로 듣고 학위를 받는데 충분한 지 여부와 학위공부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보다는 미국생활 체험을 더 중시할 것인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나의 경우는 가족 없이 혼자 유학생생활을 해야 할 형편이었고, 미국 생활체험 보다는 학위과정 체험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전자의 고민을 주로 하였다. 당시 나의 나이가 50을 훌쩍 넘은 나이여서, 젊은 학생들만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이 사항을 2015년 KDI 대학원에 다니면서 천천히 결정하려고 생각했다.

2015년 KDI대학원의 봄학기 초에는 수업의 강의내용 이해와 과제 제출 및 발표 등을 제대로 하기에 벅차고, 영어공부도 수월하지가 않아서 2년차 해외유학을 비학위 과정으로 하는 방안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러나 봄학기 중간 즈음에 정규 학위과정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어 TOEFL 시험을 보았다. 전체 점수는 내가 원하는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행정학 과정 (Public Administration)의 자격기준을 넘었으나 말하기 점수가 1점이 모자랐다. 스피킹을 중점 연습해서 5월말 경 다시 시험을 보아 영어 입학기준을 넘었다. TOEFL 자격기준은 충족시켰으나, 미국에서의 학위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학생들간의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학위과정이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KDI대학원 동기생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에 가깝게 지낸 학생들과 정보교환 및 의논도 하고, 내가 수업을 듣고 있던 몇몇 교수님들께 상의를 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봄학기 Academic Writing을 가르치셨던 이소라 교수님께서 나의 영어 작문이 잘 짜여 있다 하시면서 미국 공부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다. 2015년 여름학기를 보내면서 최종적으로 학위과정 지원을 결심하고, 8월 중순경 입학신청 원서를 제출하였다 (원서마감은 9월 중순 경으로 생각된다).

◇ 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UCD)에서의 공부

콜로라도대학교 덴버캠퍼스의 행정학 과정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은 공공정책대학원(School of Public Affairs)에서 제공하는 과정이다. KDI 대학원과 MOU를 바탕으로 KDI에서 온 한국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UCD에서 8과목(24학점)을 이수하고, KDI에서 2과목 (6학점)을 Transfer 받아서 총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해야 UCD의 졸업신청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6년 봄학기에 입학한 KDI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UCD의 학위취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새로운 MOU 체결로 변동사항이 있음).

KDI 대학원에서 온 학생들은 UCD의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s에서 제공하는 필수과목 (mandatory course) 7과목과 나머지 선택과목 (electives) 등을 포함하여 총 8과목(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 중 KDI대학원과의 MOU체결에 의해 아래 3과목 (QM, AMPP, Leadership & ethics)은 KDI에서 수강하였으면 UCD에서 면제(waive)가 되지만, 면제되는 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을 추가로 수강하여야 한다. 면제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필수과목을 수강 하지 않는 대신 선택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 KDI에서 Quantitative Method (QM)과 Analysis of Market and Public Policy (AMPP) 등 2과목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필수과목에서 이 두 과목을 제외한 5과목을 수강하였고, 선택과목에서 아래의 3과목을 들었다. 합해서 UCD에서 이수한 8과목 (필수 5, 선택 3)과 KDI 대학원에서 이수한 2과목 (QM, AMPP) transfer를 통해 총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시켰다.

▷ 필수과목 (mandatory courses)

- 1)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ice
- 2)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Behavior
- 3) Research and Analytic Methods (KDI 대학원의 QM)**
- 4) Economic and Public Finance (KDI 대학원의 AMPP)**
- 5) The Policy Process and Democracy
- 6) Leadership and Professional Ethics (KDI 대학원의 Leadership and Ethics)**
- 7) Capstone Seminar

▷ 선택과목 (elective courses)

- 8) Political Advocacy
- 9) American Public Service Environment
- 10) Personal Branding and Marketing

필수과목과 선택과목과의 차이는, 필수과목 과정이 선택과목 과정 보다 약간 더 엄격한 수업 일정과 수업의 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즉, UCD에서 졸업신청 자격은 UCD에서의 8개 과목과 KDI에서의 2개 과목(transferred)을 합쳐서 등 총 10개 과목(30학점) 이수가 기준이다.

UCD의 학사일정은 Spring, Summer, Fall 3개 정규학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Spring Semester내에 1월 중 Winterim이라는 학기가 있어서 인텐시브 과정을 제공하며, Summer Semester내에도 5

월 중 Maymester라는 학기를 통해 인텐시브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KDI 대학원을 마치고, UCD의 2016년 봄학기에 입학한 나와 KDI 대학원 동기들은 Winterim 기간 중에 인텐시브 1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이후 정규학기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다. 학교에서의 수업 난이도는 KDI에서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KDI에서 수업을 잘 소화할 수 있다면, UCD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UCD에서의 수업의 특징 및 고려할 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봄학기에 UCD에 입학한 동료들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미국에서의 수업이 토론중심이었다. 이미 예상했던 바이나 정작 당해보니 당황스러웠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오늘 배울 내용 전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에, 그날의 핵심 사항들에 대해 학생들 전체를 향해 한가지씩 연이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한가지 질문이 던져지면, 그날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한 과제물을 미리 읽고 수업에 참가한 미국학생들은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또한, 수업 중간 중간에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시키고, 토론 내용에 대한 발표도 시켰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영어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이 과정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미리 질문할 내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수업시간에 질문이 너무 없는 경우, 최종 성적 평가시 수업참여 점수(10~20%)를 대폭 감하는 교수들도 있었다.

둘째, 수업과 숙제, 평가에서 발표능력과 쓰기능력이 강조되었다. 과목마다 과제는 1페이지 분량의 정책메모에서부터 15페이지 이상 분량의 에세이 등 영어 작문의 연속이었다. 발표기회도 한국에서 보다 훨씬 많이 주어졌다. 하지만 나는 영어 말하기에서 한국 특유의 Korean accent와 더듬거림에 대한 걱정으로 발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용기를 내어 나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다. KDI 대학원에서의 발표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만약 다시 수업에 참여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가할 것이다. 어차피 배워가는 과정인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UCD에서의 성적평가는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A는 90점 이상에게 주어지고 (A: 94-100, A-: 90-93.9), B는 80점 이상 (B+, B0, B-), C는 70점 이상(C+, C0, C-) 등으로 주어진다. 성적 부여시 수업참여 학생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기준은 KDI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셋째, 수업내용이 이론 보다는 문제해결 중심이었다. 예를 들면 대부분 과목에서 수업내용은 이론적인 기본교재 보다는 개별사안에 대한 주요 논문이나 글들을 다루고, 과제들도 자기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대한 해결책을 작성하는 것 위주였다. 수업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는 Syllabus에서 제시한 article들을 미리 읽어보고 미리 자기의견을 준비해야 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모든 수업내용이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는, 과목에 따라 좀 힘든 과목도 있었지만, KDI 대학원에서 2015년에 같이 공부하고 UCD에 2016년 봄학기에 함께 입학했던 6명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와가며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하였다. 함께 공부했던 KDI 대학원 동기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 부근 행정구역

미국의 집주소에는 카운티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2015년 12월 28일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Arapahoe County)의 센테니얼(City of Centennial)에 도착하였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주소에는 카운티 이름 (Arapahoe)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집번호(#####), 거리이름, 시이름(Centennial), 주이름(Colorado), 우편번호(80111) 등. 하지만 미국의 행정조직을 이해하려면 카운티를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행정조직 체계가 수직적으로 연방정부-주정부-카운티정부(카운티 겸 시정부 도 있음)-시단위 정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주는 64개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덴버 시겸 카운티 (The City and County of Denver), 아라파호 카운티(Arapahoe County)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덴버 광역통계구역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은 덴버 시겸 카운티와 인근의 3개 카운티 (서쪽: Jefferson County, 북동쪽: Adams County, 남동쪽: Arapahoe County)로 구성되어 있다.

아라파호 카운티는 30개의 시단위 행정구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라파호카운티의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572,003명이고, 면적은 2,085km²이다. 면적은 강원도 춘천시의 약 2배 정도가 된다(춘천시 면적: 1,117 km²). 아라파호 카운티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건국 당시(1776년)에는 미국에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시정부 단위 이하)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주정부의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카운티(county)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카운티 내에서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 시단위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면,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 시단위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카운티가 관할하는 구역내에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는 아직도 시단위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unincorporated lands within a county) 들이 존재한다. 이런 지역은 카운티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한국이나 유럽에는 이런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단위 정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즉, city, town, census-designated places (CDPs), unincorporated community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아라파호카운티 내에는 30개의 시단위 정부가 있는데 이 중 11개는 City이고, 5개는 Town이며, 12 개는 CDPs이며, 나머지 2개는unincorporated community 이다. 즉 시단위 정부아래 공식 행정조직은 없다.

내가 살던 센테니얼(The city of Centennial)은 2001년 2월 7일에 아라파호카운티 내에 비인가 구역의 일부분 즉, 예전에 Castlewood와 Southglenn이라고 하는 구역들을 영역으로 하여 인가되어 탄생했다. 인구는 2010년 센서스 기준으로 100,377명으로, 아라파호 카운티내에서 10번째로 큰 규모이며, 시 면적은 72km² 로 강원도 춘천시의 15분의 1정도에 해당된다 (춘천시: 1,117km²). 따라서, 미국의 시단위 정부를 한국의 시단위와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 같다.

콜로라도주의 웰드 카운티(Weld County)에 있는 에반스시(The City of Evans)의 경우, 인구가 2010년 기준으로 9,500여명 이었다. 이 시의 전 city manager 였던 호건씨 (Mr. Aden Hogan)에 의하면, 시정부의 직원은 약 92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약 30명은 경찰이라고 한다. 시정부 직원의 평균 근무경력은 6~7년 정도되며, 승진 등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경력을 쌓은 후 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한국보다 많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하급행정(street bureaucracy)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경우, 시단위 밑에 바로 도로명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City와 한국의 City(市)를 동일시 함으로써 생긴 오류가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의 시단위 지역의 면적은 한국의 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작으며, 그 아래의 행정조직도 없기 때문에 한국의 동(洞) 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시는 면적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시 보다는 카운티에 가깝다. 한국에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의 시(市) 이름 (미국의 County)과 거리 이름(street name) 사이에 동(洞)이름(미국의 City)을 생략한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센테니얼 시정부는 의회-매니저형 정부이다. 따라서, 시장과 시정부의 파워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 등에 치중되어 있다. 행정은 의회와 시장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선정한 한 명의 매니저(manager)와 한 명의 시 서기(city clerk)에 의해서 주도된다. 시장과 시의원(8명)은 선출직이며 모두 파트타임 직위이다. 때문에 이들 선출직들은 모두 풀타임 생업을 가지고 있다.

◇ 콜로라도 덴버지역의 생활

첫째, 콜로라도 덴버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 렌트비 등이 오르고 있다. 이는 콜로라도주가 2012.11.6일 콜로라도 주헌법 64조 개정을 통해 레크레이션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주지사가 2013. 5월 28일 이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이지만 콜로라도주와 몇몇 미국의 주정부에서는 이를 합법화하였다. 따라서, 인근 주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기 위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고, 마리화나 산업 발달 및 세수 증대로 콜로라도 주정부의 재정은 좋아지고, 인구는 늘고 있다. 따라서, 주택 렌트비는 중서부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싼 편이다. 나의 경우, 홈쉐어링으로 가구를 갖춘 방 1개와 화장실, 주방 등을 사용하면서 유틸리티 비용 포함 월 725달러의 렌트비를 지불하였다. 4인 가족 1가구가 살 수 있는 인근의 아파트형 주택의 렌트비는 약 1,300~1,500달러 정도인 것 같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은 덴버지역에 잘 발달된 경전철(RTD)를 이용하였다. 학교 수업료에 RTD 이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 무제한 무료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미국은 주말골퍼의 천국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골프가 아직도 사치성 스포츠의 하나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중 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인근의 골프장(18홀)의 경우, 주중에는 할인한 가격으로 25달러 내외, 주말에는 35달러 내외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과 주중에 60~70세 연령대 분들이 매우 많았다. 나는 한국에서 골프레슨 3개월 정도 받은 경험 이외에 필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일정이 바쁜 상반기에는 전혀 골프를 못하였으나, 가을학기 중반 이후부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가끔 필드에 나가 즐길 수 있었다.

셋째, 공공 레크레이션 센터와 공공도서관이 잘 발달되어 있다. 주택가 주변에 여러 군데의 공공 레크레이션 센터 및 공공 도서관등이 있어서,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근의 사설 체력단련 시설 (fitness center) 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10달러/월) 이용할 수 있었다.

콜로라도 사람들은 운동 등 건전한 생활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미국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서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시간 만큼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한다고 한다. 출근은 대부분 오전 6~7시, 퇴근은 오후 4시~5시에 하고 있었다. 퇴

근 후에는 가족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네째, 주위에 가족단위 나들이를 위한 공원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인근에는 Cherry State Park 등이 있는데, 가족단위로 주말이나 휴일에 나들이하기 안성 맞춤이다. 공원 중에는 유료인 경우도 있고 무료인 경우도 있다. 유료의 경우, 입장료가 차 1대당 9달러 정도 한다. 또한, 콜로라도 심포니의 경우, 학생에 대해 요금할인을 많이 하여 10달러에 한 편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왔기 때문에, 한가할 때에는 가까운 곳 여행을 다니거나 Fitness Center에서의 체력 단련, 골프,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 미국에서의 1년간 생활에 대한 소감

처음 UCD에서 석사학위 공부에 대해 가졌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학업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던 수준이었고, 다만 좀 더 성실하게 수업 준비도 하고, 수업시간 중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나이가 들어도 지적 능력은 진화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50이 넘는 나이에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무사히 마친 나 자신에게, 격려해주고 싶다. 미국에서의 석사학위와 1년간의 생활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 했다. 미국에 있던 기간 동안 내가 필요로 했을 때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다. 내게 미국 유학기회를 제공해준 KDI School측에 감사 드린다.

KDI 대학원 후배가 미국에서의 학위공부 여부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권하고 싶다.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다면 더 더욱 그렇다. 한편, 나의 경우, UCD에 혼자가 아니라 KDI 대학원 동기생 등 한국에서 온 6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학교 공부, 학교 생활, 현지생활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국 유학생생활에서 오는 불안감, 고민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전영길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william1126@lh.or.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Denver SPA	(국가) US
기 간	2016.1.1-2016.12.17	[귀국일: 2016 년 12 월 19 일]
첨부서류	GMP 2 년차 보고서 (3 페이지 이상; 10pt. 1 줄 간격)	

본인은 **GMP 2 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 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 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 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 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6 년 12 월 일

신 청 인 : 전 영 길 (인)

GMP 2 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미 중서부 콜로라도 주의 중부에 위치한 덴버(Denver)는 중서부의 중심도시로서 63 만여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미국에서 27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임). 해발 1,400m 에 위치한 이 도시는 요양지로서도 유명하며 로키산맥 옆에 위치한 도시인 만큼 미국 전역에서 스키를 즐기러 방문하는 장소임. 기호는 대체로 온화한 편이며 건조한 것이 특징이며 4 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음. 한국과 시차는 16 시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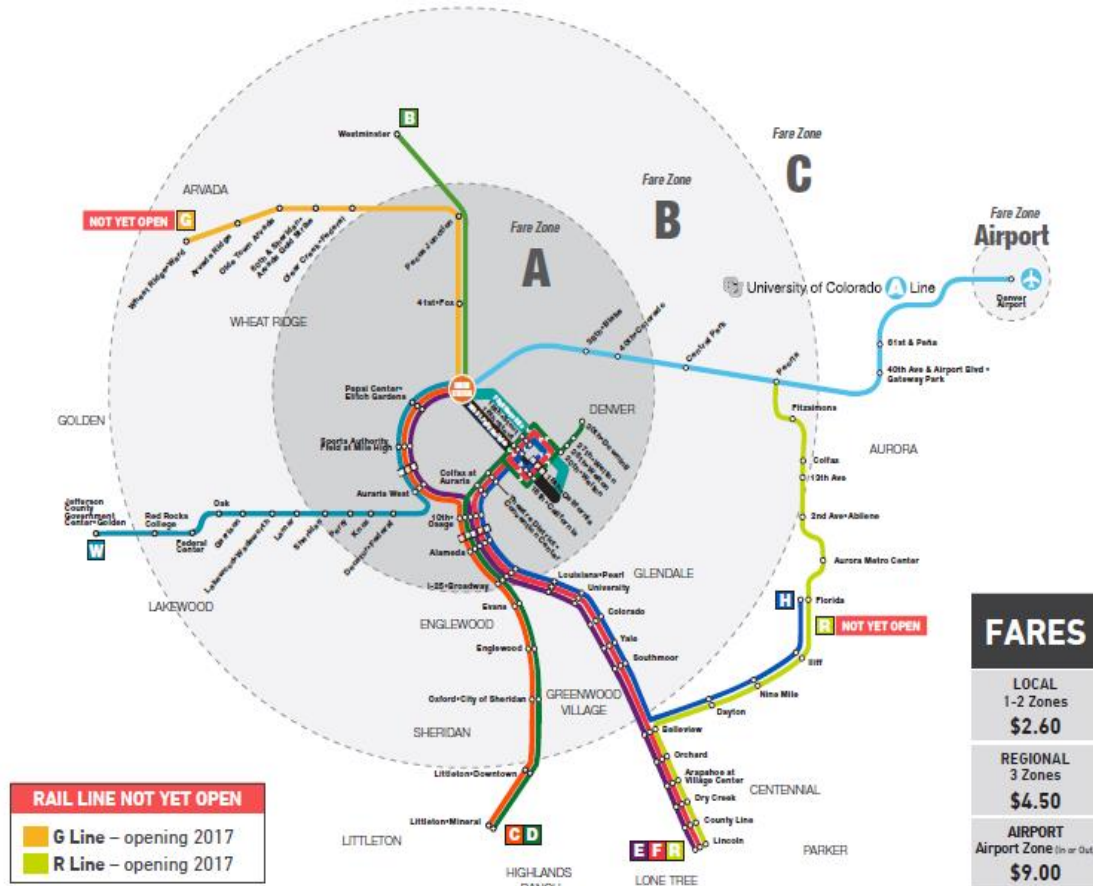


Monthly Average/Record Temperatures



덴버는 예술분야가 활성화 되어 있어 다양한 뮤지컬, 오페라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조형물들을 도시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16 번가 거리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 등을 즐길 수 있으며 현대식 건축물과 오래된 건축물의 조화를 느낄 수 있음

대중교통은 RTD 라고 하는 경전철과 버스가 동서남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덴버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음. UCD 는 덴버 다운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주차가 용이하지 않고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RTD 를 이용함. 각 역마다 환승객이 이용가능한 주차장이 무료로 제공됨으로 자가용을 통해 RTD 역으로 이동하고 RTD 를 통해 통학을 하는 것이 시간, 비용 등 종합적이 측면에서 유익함.



GMP 2 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D SPA 의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토론이 수업의 중심이 되며 이론적 접근은 다소 제한적임. 실 사례를 활용한 수업진행이 많으나 우리나라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이 미국과는 어느정도 차이를 가지는 만큼 벤치마킹 포인트를 찾기는 쉽지 않음. 수업의 충실성 및 준비도는 KDI 와 비교시 다소 열위에 있다고 생각됨.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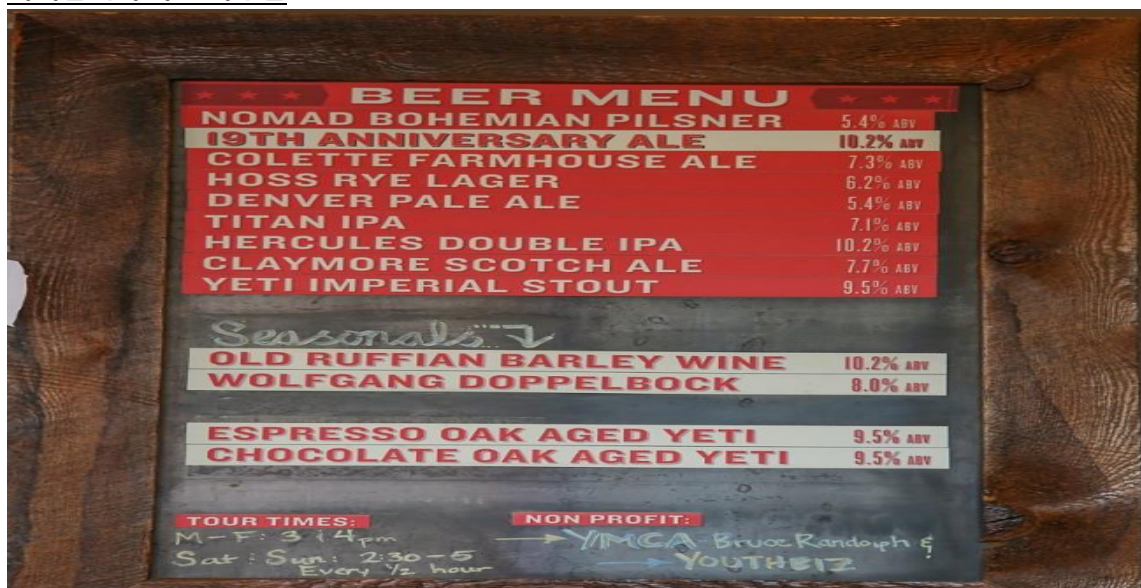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제안 등

수강신청에 있어서 코어(필수)과목을 제외하고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수는 3-4 과목으로 제한됨. 일렉티브(교양) 과목의 경우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필수과목보다 적은 편이지만 교수마다의 편차가 있는 만큼 2 년 과정 교육생들과 사전에 상의하여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UCD 는 계절학기, 인터넷강의 모두 허용이

되는 점은 시간 활용에 있어 큰 장점이 될 수 있음으로 학교정규과정외 현장체험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강의, 계절학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기숙사 운영이 8 월(가을학기)부터 1 년 단위로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기숙사 활용은 불가능하며 자녀 교육, 생활편의 등을 감안 시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아파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아파트 월 렌트비는 사이즈등에 따라 다양 하지만 1 천달러 중반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음. 전통적인 미국음식 이외에 일식집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식당은 오로라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현지 물가등을 고려 시 가정에서 주로 식사를 하게되며 기본적인 한식 식재료는 오로라에 위치한 H 마트를 활용함. 콜로라도는 영세 양조장이 많은 만큼 다양한 지역 맥주들을 맛볼 수 있으며 대부분 리쿼샵에서 구입가능함



기타활동에 대한 경험담

콜로라도가 미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만큼 샌프란시스코, LA 등 캘리포니아 및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용이한 만큼 틈틈히 가까운 지역부터 여행을 다녀볼 것을 제안함. 또한 세계적인 스키장(베일 등)이 있는 도시인 만큼 시즌패스를 구입(55 달러 가량)하여 즐길 것을 추천함

GMP 2 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UCD 의 경우 개인적인 시간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 등 생활환경이 우수한 만큼 지식 함양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미국의 정치, 환경, 교육, 문화등에 대한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며 넓은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음.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 정보

출입국과 관련하여는 미국 입국 시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여 일본 경유하여 덴버로 운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중간에 짐을 찾아서 다시 보내야 하는 타 공항에 비해

편리하고 입국심사 또한 타 공항에 비해 간단함. 덴버의 경우 일교차가 다소 큰 편으로
외출 시 여벌의 옷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함. 쇼핑의 경우 주방용품(접시 등), 미국
디자이너 브랜드(코치, 폴로 등) 등이 한국 대비 저렴하나 제품의 디자인, 질 등을 감안 시
한국제품이 더 우수한 경우가 많음으로 가급적 한국에서 사용하던 의류나 제품을 가지고
입국하시면 좋을 듯하며 헤어드라이어는 한국제품을 사용하실 수 없음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후배님들 모두 평생 간직할 만한 즐겁고 보람찬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기회가
되신다면 종교생활을 추천드립니다. 종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음. 또한 현지 2 년차 과정에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계시는 만큼 자주 만남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허인숙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Ishurh63@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국가) USA
기 간	2016.1.6~2016.12.17	[귀국일: 2016년12월22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6년 12 월 26일

신 청 인 : 허 인 숙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덴버(Denver)는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콜로라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주도이다. 해수면으로부터 1 마일 고도에 있어 미국의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일 하이 시티 (Mile-High City)라는 별명이 붙었다.

4 계절이 뚜렷하며 기온은 다소 건조한 편으로 여름에도 땀이 많이 나지 않으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나 금방 녹는 특징이 있다. 흔히, 날씨의 변화가 좀 심하여 4 계절의 옷을 다 꺼내 놓고 생활하는 도시라고도 한다. 록키 산자락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겨울이면 많이 내리는 눈으로 스키 등 겨울 스포츠가 발달한 도시이다. 한 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장 등이 많이 있으며 제설작업이 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눈으로 인한 교통 걱정이 필요 없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생활하기 편리하고 즐거운 곳이다.

음식과 관련하여는 한인마트 (H-mart)가 시내에 있어 한국음식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으며 도서관, 공원 등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여가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물가는 타 도시와 달리 살기 좋은 곳이라는 명성으로 렌트비(1 베드 1 베쓰 1,200 불 정도)가 상승하는 추세로 다소 비싼 편이나 기타 전기, 인터넷, 자동차 유류, 의류 등 생활비는 저렴하다. 전기료와 인터넷 사용료는 한 달에 30 불 정도를 납부했으며 특히 자동차 유류비가 한국의 1/3 가격 정도로 월등히 저렴하다.

아이들 교육에 관하여는 대학생 아들 한 명이 어학연수를 했는데 대학교 부설 어학원은 연수비가 좀 비싼 편이어서 사설 어학원을 이용했다. 아들이 다닌 사설어학원(LCI 어학원)은 RTD 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하루 4 시간 수업에 월 1,000 불 정도를 교육비로 납부했다. 학생들 구성은 주로 아랍계와 라틴계 학생들이 많고 연령대는 주로 20 대 후반에서 30 대초의 학생들이 많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우선, KDI 에서 수강한 필수과목(경제학, 통계방법론)과 선택과목 한 과목이 학점 인정이 된다. Policy Process and Democracy 도 waiver 를 받을 수 있다. Waiver 를 받으려면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학교생활에 대하여는 KDI 보다는 수업강도가 약한 것 같다. 과목 선택에 따라 학교생활이 많이 달라진다는 선임자들의 조언을 따라 수월하게 수강을 했다.

과목은 총 8 과목 24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코어과목과 캡스톤 과목 동시수강을 자제하고 있어 코어과목은 여름학기 이전 수강 완료하여야 한다.

1 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봄학기 6 과목(윈터림 1 과목 포함), 여름학기 1 과목, 가을학기 캡스톤 1 과목을 수강했다. 수업 방법과 질에 대해서는 주로 토론식과

발표 수업이고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가능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미래 행정 공무원을 양성하고 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신청은 인터넷 베이스로 시스템을 알면 편리하나 시스템을 적응하기까지 선임자들의 조언과 안내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 특히 수강 과목 선택에 대해서 선임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Policy Process and Democracy의 경우 KDI에서 수강 후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수강해 오면 좋을 것 같다. 본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강하였다. 상반기에는 좀 바쁜 일정이나 집중코스를 활용하여 수강하면 2주면 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서 수강에 큰 부담을 덜 수 있었다.

No	Course Title	Credit	Term
1	American Public Service Environment	3	2016 Spring
2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Science	3	2016 Spring
3	Leadership and Professional Ethics	3	2016 Spring
4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Behavior	3	2016 Spring(Intensive)
5	Policy Process and Democracy	3	2016 Spring
6	Political Advocacy	3	2016 Spring(Winterim Intensive)
7	Marketing & Personal Branding	3	2016 Summer(Intensive)
8	Capstone Seminar	3	2016 Fall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아파트는 살기 좋다. 땅이 넓은 나라인 만큼 주차공간도 넉넉하다. 아파트 단지 內 편의시설(수영장, 운동기구들이 갖추어진 fitness center)이 잘 되어 있고, 각 아파트 세대 內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탈수기 등 가전 제품들이 잘 구비되어 있다. 학교 출퇴근을 위한 RTD요금이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어 RTD역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

음식에 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한 것처럼 한인마트 (H-mart)가 있어 한국음식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으며 Costco, Wal-Mart, Target 등이 잘 형성되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County마다 도서관을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여가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했다. 각종 도서는 물론 비디오, 오디오 북 등 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하여 좋아하는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튜터링 프로그램도 신청하여 활용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대학원 공부는 물론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외국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덴버의 경우 1년 300일 이상을 한국의 가을 하늘같은 맑고 드넓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어서 학업 이외에 부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 출입국에 대해서는 J2비자로 동반한 아들이 연수 종료 2달을 남겨 놓은 10월 말에 만 20세 생일을 맞아 성인이 되어 동반가족 비자가 자동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잠시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관광비자로 미 입국하여 남은 기간을 함께 보내고 오긴 했으나, 연수 도중 aging out이 발생 할 자녀를 동반할 경우 미리 별도 비자를 받아서 출국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할 것 같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白文 不如一見”이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이 견고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조성호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chosungho@hot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SPA (국가) USA
기 간	2016.1~2016.12 [귀국일: 2016년12월22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1 월 일

신 청 인 : _____ 조 성 호 (인)

●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는 미 중서부에 위치한 콜로라도 주의 주도이며, 해발고도가 높아(대략 1 마일) Mile-High City 라는 별명이 있다. 덴버지역은 미국에서 7 번째로 큰 Metropolitan area 이다.

일년내내 건조한 기후로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낮은 습도와 강한 햇빛으로 생활하기에는 한국보다 쾌적하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나 황사의 걱정이 없이 쾌청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Rocky 산이 인접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겨울이면 충분한 자연설로 인해 스키 스포츠의 중심지이다. 한 시간~두시간 거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장 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도착후 높은 고도와 낮은 습도로 인해 갈증을 쉽게 느끼고, 어린 아이는 코피를 흘리기도 한다고 하나 곧 적응이 된다.

유학생들은 주로 덴버보다는 RTD 로 이동이 가능한 Centennial, Highland Ranch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등록금에 포함된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통학한다. (학교내 주차장은 유료)

위 지역에서 차량으로 10 분이내에 Costco, IKEA, Walmart 등 필요한 시설이 모두 있으며, Aurora 에는 한인마트 몇 군데와 한식당들이 많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생활비중 렌트비는 KDI 제휴 학교 중 대도시(LA, San Diego, Seattle, New York 등)를 제외하면 가장 비싼 곳이나 다른 장바구니 물가는 다른 소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 집 값은 아파트 2beds & 2Baths 기준으로 \$1,400~1,800/월 정도이며, 계약시점, 위치, 학군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 년과정은 주로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우스체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집은 목조로 지어져서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커서 집 계약시 위치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 덴버 도착방법 : 현재 한국에서의 직항은 없으며, 미국 서부지역에서 Stopover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미국내 최초 도착 도시에서 입국수속 및 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일본(동경)을 경유하는 UA 항공을 추천하며, 타 노선대비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낮 12 시경으로 편리하며, 입국수속이 수월한 덴버에서 입국수속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경유지에서 짐을 찾지 않고 최종 도착지인 덴버에서 짐을 찾는다는 장점이 있다.

● GMP 2 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우선, KDI 에서 수강한 과목중 일부 과목은 waiver 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절차는 KDI 교학처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된다. 수업은 토론과 발표를 많이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참여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외국인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UC Denver 의 특징은 전체 이수과목중 일부는 on-line 수업, 계절학기 수강, 또는 intensive 로 진행이 가능하여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주로 GMP 과정 학생은 여름학기

기전에 대부분의 과목을 이수하고 가을학기는 캡스톤만 또는 캡스톤+1 과목 정도만 수강하여 여유있는 하반기 생활을 할 수 있다.

입학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제시한 TOEFL 개별 과목의 sub 점수 기준을 조금 못 미친다면 빨리 원서를 제출하는게 아주 유리하다.

●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라버스가 사전에 배포되지 않아 과목명과 교수명에 기초하여 신청을 하였으며, 선임자들의 조언과 안내를 받는 것이 편리하며, 개설과목 등은 기존의 귀국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아파트는 대부분 2~3층 높이에 200~300여 세대 규모로 되어 있고, 최소 수영장과 fitness center의 편의시설이 있다. 가족이 전부 거주할 경우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통상 위 순서로 가격이 증가하며 1년 과정의 경우는 통상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미국의 새로운 주택문화를 경험해 보고자 하신다면 타운하우스에 거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기숙사는 학교인근에 위치하며, 가족을 위한 숙소는 제공하지 않으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 앞서 언급한 한국인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우스 셰어가 나올 것으로 같다.

● 자녀교육 및 여가활동

Denver 지역은 공교육 여건이 매우 우수하며, Centennial, Highland Ranch 지역의 경우 집근처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herry Creek School District 내 학교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등록(전입)시 해당 지역 교육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며, 해당 교육청에서 자녀의 출생일자에 따라 학년을 배정해주며 한국에서 큰 문제없이 생활했다면 굳이 학년을 낮추어서 다닐 필요없이 교육청에서 배정해주는 학년에서 학업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자녀들의 여가 활동은 동네마다 Recreation center가 있어 운동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또한 도서관도 잘 운영하고 있어서 여가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했다.

덴버 다운타운에는 미국 4대 스포츠인 야구, 풋볼, 농구,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밀집하여 있어 주거지에서 40 분 내외에 경기관람이 가능하며, 또한, Performing Art Center 에서 다양한 공연관람이 가능하여 (클래식의 경우 학생 할인), 다운타운에 각종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미술관, 식물원 등이 밀집해 있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학교생활은 물론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외국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덴버의 경우 비교적 낮은 학비, 쾌적한 환경, 안전한 생활여건, 우수한 자녀교육, 적절한 문화시설의 장점을 갖춘 곳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는 F와 J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비자별 장단점을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다. 입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내 경유 항공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제3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이 편할 것이며, 미국 출국시는 어느 항공을 이용하더라도 중간에 짐을 찾지 않는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낮선 곳에서 가족들과 일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가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두려움과 설레임의 시간이 될 것이며, 또한 학위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전 충분한 준비와 가족들과의 사전 교감/공감을 나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가족간의 추억을 간직하시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